

청소년 부모 양육 역량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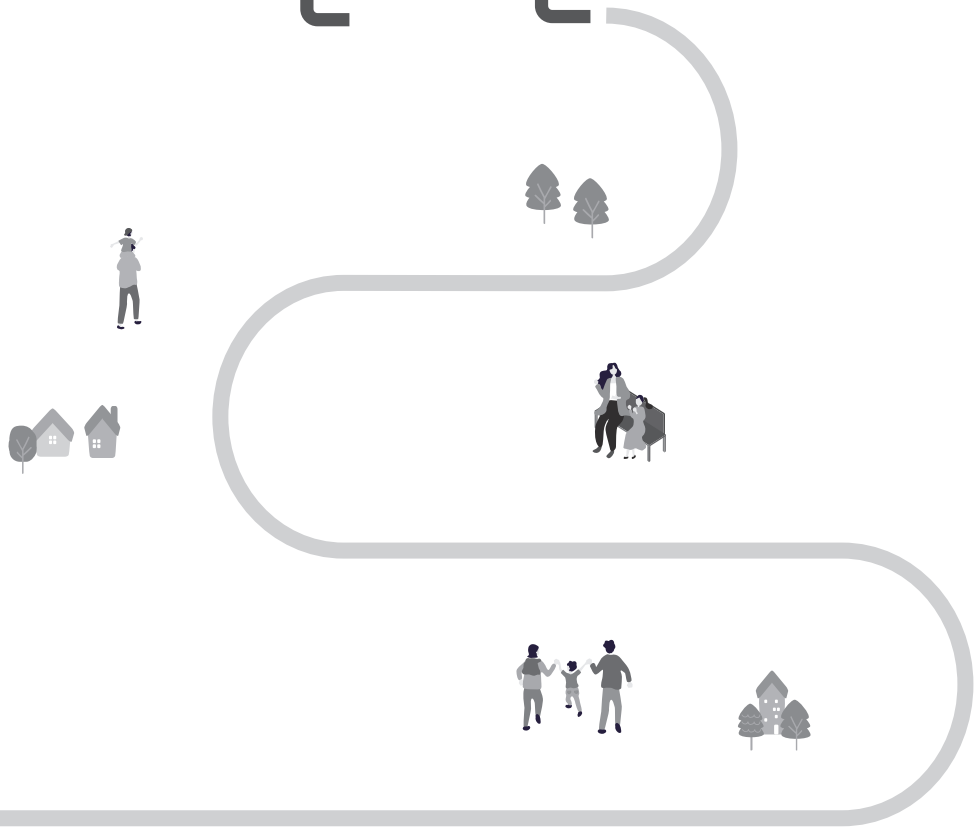
2023. 11. 28(화) 10:00 ~ 12:00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2023년 제11차 KICCE 정책토론회

청소년 부모 양육 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청소년부모 양육 특성 맞춤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모는 24세 이하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후 자녀 양육과 더불어 자신의 학업이나 취업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주변 지지 체계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청소년부모와 같이 자녀 돌봄에 있어 취약·위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5개년도의 가정 내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두 번째 연구과제로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와 더불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연구진과 이정아 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박현선 교수님, 장혜림 교수님, 이상정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청소년부모 양육 특성 맞춤 지원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향후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11. 28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2023년 제11차 KICCE 정책토론회

청 소 년 부 모
양 육 역 량
지 원 방 안

프로그램

사 회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0:00~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 영 사

박 상 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0:10~11:00

발 표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의 방향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이 정 아 더관계연구소 소장

11:00~11:30

토 론

박 현 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상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 혜 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30~11:50

종합 논의 및 폐회

청 소 년 부 모
양 육 역 량
지 원 방 안

목 차

발 표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의 방향

조 속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1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이 정 아 더관계연구소 소장 29

토 론

박 현 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9

이 상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5

장 혜 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1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발 표 1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의 방향

조 속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의 방향

2023. 11. 28.

조숙인 연구위원

- 본 발표 자료는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보고서 발간일은 2023년 12월로 연구내용 인용 시 발간 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01 연구 개요
- 02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 03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 04 청소년부모 양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



01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1-1

연구 목적, 내용, 방법

연구목적

- 청소년부모의 양육지원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및 보급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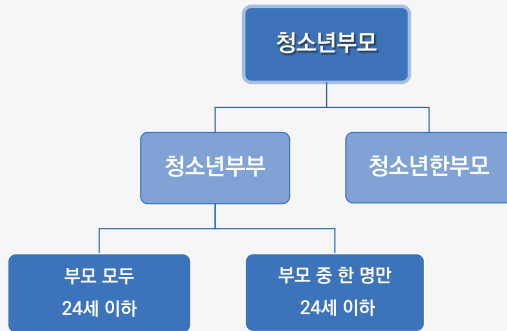
- 청소년부모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 정리
-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파악
-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 제안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현장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실무 협의회	육아지침서 개발	정책세미나 개최
------	------	------	--------------	-----------------------	-------------	----------

1-1

연구 범위



-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모와 청소년부를 의미함.

- 양육역량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내적 특성과 외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자녀 연령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초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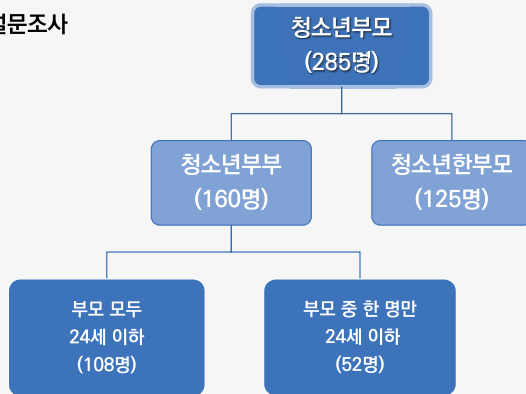
02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2-1

조사 대상

• 설문조사



• 심층면담

: 영유아를 양육중인
청소년부부 7명
청소년한부모 8명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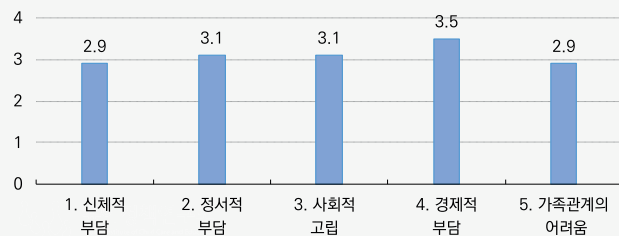
임신 출산 경험

• 출산 시 상황

- 첫 자녀 출생 시, 평균 연령 어머니 19.3세, 아버지 21.8세
- 청소년부부 중 현재 친부/친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95%

•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담

- 경제적 부담 > 정서적 부담
> 신체적 부담/가족관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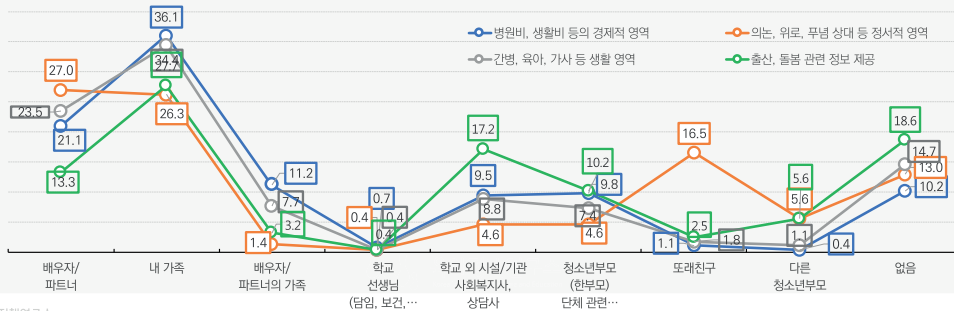


2-1

임신 출산 경험

• 출산 시 도움

-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자신의 가족
-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비율이 영역별 10.2~18.6%로 분포
- 청소년한부모, 미성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낮은 경우 도움이 없는 비율 ↑



육아정책연구소

9

2-1

임신 출산 경험

• 임신, 출산 정보 습득 경로

- 온라인, 인터넷 검색, 미혼모지원기관과 시설

• 미혼모자시설 이용 경험

- 전체 청소년부모 27.9%, 청소년부부 7.6%, 청소년한부모 51.8%

•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 전체 청소년부모 52.9%, 청소년부부 61.4%, 청소년한부모 42.9%

육아정책연구소

10

2-2

건강

- 산후우울 경험 비율
 - 전체 청소년부모 84.4%
-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 전체 청소년부모 25.3%, 청소년부부 16.9%, 청소년한부모 36.0%
 - 한부모, 저소득 가구의 상담 유경험 비율 ↑

2-3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자녀 양육/돌봄 현황
 -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 직접 양육 불가시 조부모 도움 받음.
 - 미성년인 경우 돌봐주는 사람 없는 비율 ↑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잠자는 시간 제외)
 - 주중 10시간, 주말 14시간 24분
 - 미성년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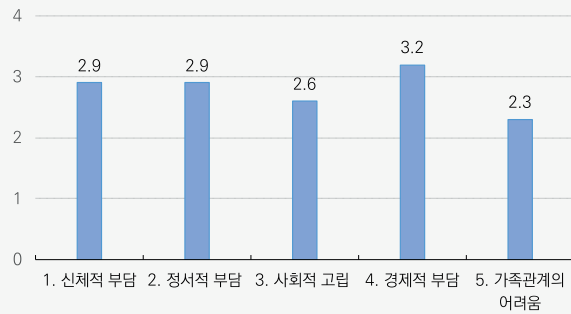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자녀 양육 부담

- 경제적 부담 > 신체적/정서적 부담
> 사회적 고립 > 가족관계의 어려움

• 자녀 양육정보 습득 경로

-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가족 친지 의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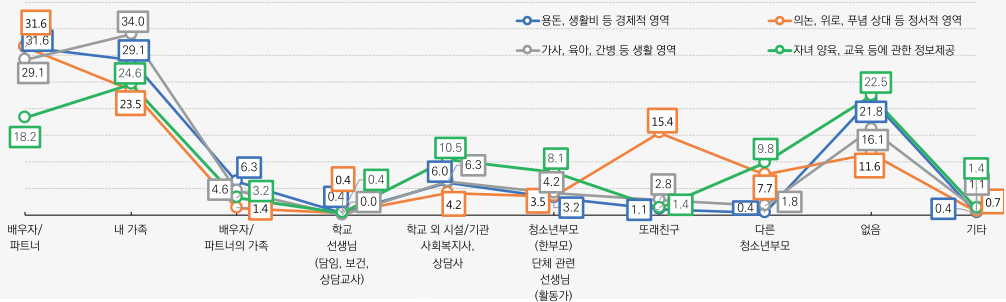


2-3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자녀 양육 도움

- 청소년한부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 양육 도움 없는 비율 ↑



2-3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자녀 애착

- 4점 만점 기준 평균 3.8점으로 자녀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평가

• 자녀 양육역량

- 5점 만점 기준, 상호작용 역량 4.3점, 인지적 역량 4.1점, 양육효능감 3.5점, 정서적 역량 3.5점
- 청소년한부모, 소득이 낮은 경우 상호작용 역량과 양육효능감 ↓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육역량 1순위 = 상호작용 역량
- 나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한 삶에 집중하는 비율 ↑

2-3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부모됨

- 친구같은 부모, 자애로운 부모
-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해주는 부모

• 자녀관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
- 당당하고 예의바른 사람
-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
-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
-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자신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2-4

가족관계

• 원가정과의 관계

- 원가정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청소년부모 전체 22.5%, 청소년부부 18.1%, 청소년한부모 28.0%
- 원가정 부모와 함께 살지 않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 청소년부모 전체 80.5%, 청소년부부 86.3%, 청소년한부모 72.2%

• 가족관계 만족도

- 5점 만점 기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4.5점, 원가정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3.7점,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만족도 3.9점

2-5

가정환경

• 거주지역

- 수도권 42.5%, 비수도권 57.5%

• 학업

- 최종학력: 고졸 70.9%, 중졸 이하 15.8%, 전문대 졸업 8.4%, 4년제 졸업 4.9%
- 학업 중단 경험: 청소년부모 전체 24.6%, 미성년 출산 시 증가 경향
- 현재 학업 중인 경우: 청소년부모 전체 10.9%,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학업중인 비율 ↑

• 취업

- 현재 경제활동 여부: 청소년부모 전체 30.9%(1명 이상 경제활동 하는 가구 178가구,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가구 107가구)
- 청소년부가 경제활동 하는 비율 ↑, 정규직 43.2%
- 구직/취업 준비중: 청소년부모 전체 70.8%, 청소년부부 61.3%, 청소년한부모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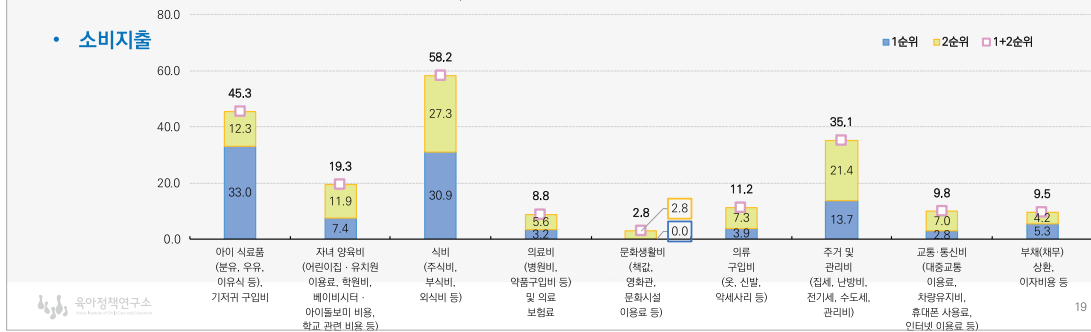
2-6

가정환경

• 가구소득

- 월 평균 가구소득(정부지원금 제외): 청소년부모 전체 약 152만원,
청소년부부 약 224만원, 청소년한부모 약 61만원
- 월 평균 정부지원금: 청소년부모 전체 약 80만원
청소년부부 약 60만원, 청소년한부모 약 106만원

• 소비지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National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19

03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3-1

영역별 지원 요구

영역	1 순위	1+2 순위	연구 결과 종합	특성별 구분
자녀 양육 지원 (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1	1	- 이용경험 92.6% - 만족도 3.4점 - 양육비 지원 희망 56.5% -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15.4%	- 미성년, 청소년부모, 정부지원금 많이 받을수록: 양육비 지원 희망 ↑
임신·출산 지원 (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2	4	- 이용경험 91.6% - 만족도 3.5점 - 병원비 지원 확대 29.1%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 확대 26.7%	- 최근 출산한 경우: 만족도 ↑ - 미성년, 청소년부모: 산후조리 지원 희망 ↑
가족 주거 지원 (예: LH임대지원, 공공주택지원)	3	2	- 이용경험 37.9% - 만족도 3.8점 - 주거비 지원 확대 49.1% - 임대주택 공급 확대 36.5%	- 청소년한부모, 자녀 연령 높을수록,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소득 낮을수록: 이용 ↑ - 출산 시 미성년: 주거비 지원 확대 희망 ↑ - 출산 시 성인: 임대주택 공급 희망 ↑

3-1

영역별 지원 요구

영역	1 순위	1+2 순위	연구 결과 종합	특성별 구분
부모 취업 지원 (예: 국민 취업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4	3	- 이용경험 28.8% - 만족도 3.6점 -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42.1% - 취업/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30.2%	- 청소년한부모, 자녀 연령 높을수록, 소득 낮을수록: 이용 ↑ - 성인: 취업/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희망 ↑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예: 심리상담, 부모교육)	5	5	- 이용경험 17.5% - 만족도 3.7점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27.0% - 청소년부모 심리적 지원 강화 22.5%	- 청소년한부모,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 낮을수록: 이용 ↑ - 미성년: 자조모임 확대 희망 ↑ - 출산 시 미성년: 부모 심리적 지원 강화 희망 ↑
부모 학업 지원 (예: 검정고시 학습지원)	5	6	- 이용경험 18.9% - 만족도 3.6점 -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 41.1% -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27.4%	- 미성년, 청소년한부모 이용 ↑ - 미성년: 학업 비용 지원 희망 ↑ - 출산 시 성인, 성인: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희망 ↑

3-2

제도 지원 전달체계

자원센터/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특성
아이돌봄서비스	79.6%	31.2%	청소년한부모: 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55.1%	22.5%	소득 높을수록: 인지도 ↑, 경제활동 하는 경우: 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3%	14.0%	청소년한부모, 출산 시 미성년: 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48.8%	12.6%	비수도권: 인지도 ↑
위(Wee)센터	48.1%	15.8%	비수도권: 인지도 ↑, 출산 시 미성년: 이용 ↑
가족센터	39.6%	18.9%	청소년한부모: 이용 ↑

04

향후 정책 지원 방향

4-1

기본 방향

• **청소년부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전환:**
‘아동중심’의 보편적 지원 확대

- 기존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 재평가, 청소년부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
- **아동 중심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의 틀 형성: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자녀양육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 자녀 연령 고려
- 자녀 대상 지원은 영유아 부모 대상 지원과 연결, 부모 청소년기 과업 해결은 청년 지원과 연결

4-1

기본 방향

• **생애초기 집중 지원: 임신기 지원 강화, 긍정적 경험 제공**

- 현재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시작
- 청소년기 임신 경험 시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 **‘모든 임신은 축복받을 일이다’** 라는 메시지 강력히 전달
- 출산을 결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확대
- 특히 생애초기 긍정적 경험 제공: 효능감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4-1

기본 방향

• ‘자립’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강화

- 청소년부모의 청소년으로서의 과업은 학업과 취업을 기반으로 한 ‘자립’이 핵심
- 수급에 의존하는데 머무르지 않도록, 청소년부모의 생애초기(부모로서의 초기)에 학업과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업과 취업 성취에 대한 긍정적 보상(인센티브)으로 추가 지원
- 인센티브는 청소년부모가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문화지원’ 강화

4-1

기본 방향

• 단계별 구조적 맞춤형 지원: 인적 지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 어떠한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어른’ 부족, 다양한 서비스(인적 지원) 부재
- 단계별 구조적으로 ‘설계된’ 지원 필요
- 시기(임산·출산기, 자녀 양육기), 과업(청소년으로서의 학업/취업, 지역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사례관리 제공
- 인적 지원 중심: 학업/취업 멘토, 사례관리사(가정 관리, 양육 지도 목적), 상담사(청소년 심리상담 목적), 주거 컨설턴트(청소년 주거 정보 제공 및 계획 목적)

4-1

기본 방향

•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마련

- 지원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지 않으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 청소년부모 지원 센터로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위(Wee)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필요
- 통합사례관리 주체 기관: 가족센터 추천
- 지속가능한 청소년 자립,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체계적 설계 필요

4-2

세부 지원 방안

영역	세부 지원 전략
자녀 양육 지원	• 보편적 양육비 지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 •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임신·출산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α • 임신 초기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 • 임신기 청소년부모 출산 시설 마련
가족 주거 지원	• 청소년부부를 독립적 가족 주체로 인정 • 임신기에 주거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확대 지원 • 청소년부모를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확대 • 청년·신혼부부 계층 임대정책과 연결지어 주거 지원 확대

4-2

세부 지원 방안

영역	세부 지원 전략
부모 취업 지원	-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특별우대 조건 부여 - 취업 준비 중, 근무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구조화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자녀 연령별 발달 정보,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과 더불어 아동 인권 교육, 아동 학대 방임 예방교육 포함 - 통합사례관리, 방문형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강화
부모 학업 지원	-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임신 중에도 학교를 지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 - 고등학교 사이버이수 가능하도록 확대 - 학업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 청소년부모 대학특례입학 확대 - 멘토 지원 강화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발 표 2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이 정 아 더관계연구소 소장

2023 육아정책연구소 청소년부모 힘키우기

발표일 | 2023.11.28
발표자 | 이 정 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 육아정책연구소
청소년부모 힘키우기
육아지침서

CONTENTS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01 육아지침서의 필요성
- 02 육아지침서의 목적
- 03 육아지침서의 구성
- 04 육아지침서의 세부 내용
- 05 제언



“아이를 낳아서 우울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개네들은 학교를 가는데, 개네들은 친구랑
노래방도 가는데, 개네들은 저기서 저렇게
학교 다니고 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고,
저녁시간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만 여기서
이려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진짜
우울감에 빠지기 되게 쉬운 지름길이거든요.”

Q.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를 어디서 얻나?

A. 인터넷 블로그나 맘카페 같은 사이트에서 얻는다. (42.3%)



“검색을 하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이미 정
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정보를 찾기는 좀 힘들어요.”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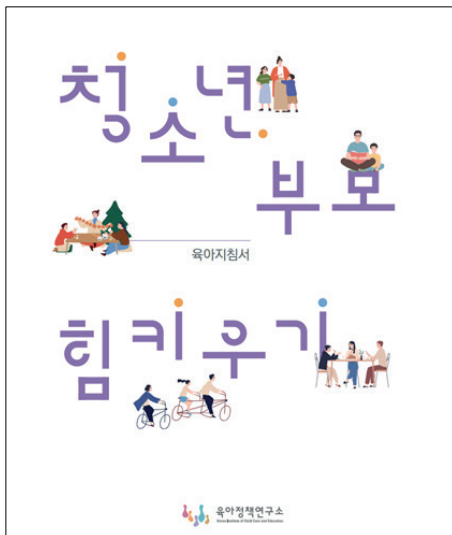
Q.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가?

A. 상호작용 역량 (58.9%)

“진짜 말하는 거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아기들한테 말하거나 할 때,
내 기분에 따라 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심리? 그런 걸 좀 더 이해하고... 대화
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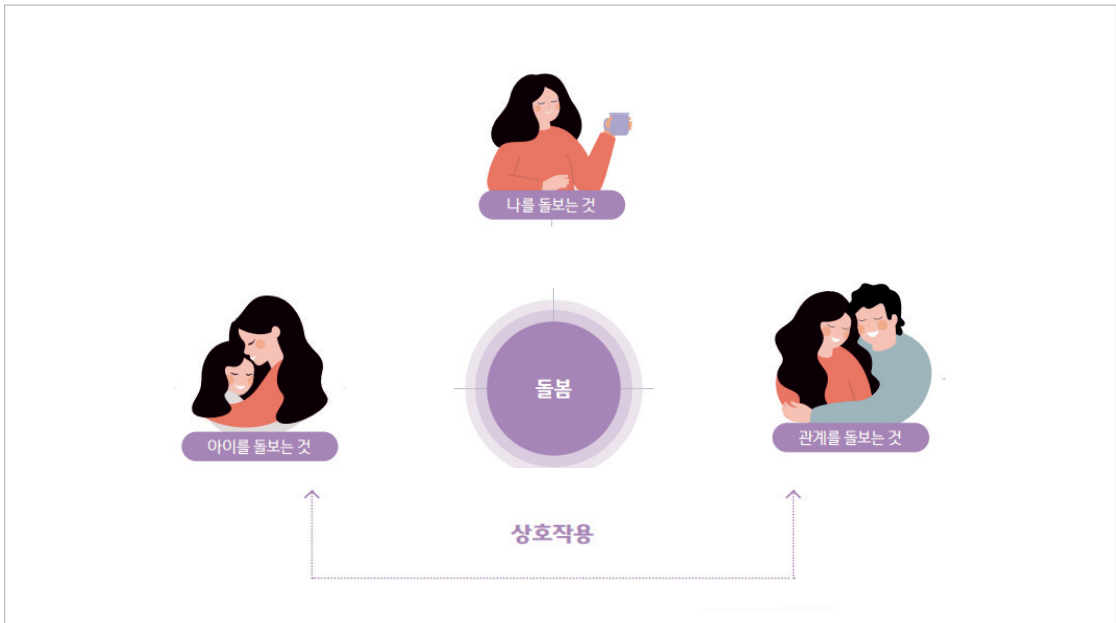
“아기 훈육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아기가 진짜 아
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낼 때...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제일 배우고 싶어요.”



목 적

청소년부모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서 관리 기술을 익히는 것을
돕는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호작용' 방법을
연습하는 것을
돕는다.



나를 돌보는 것

청소년부모의 어려움

나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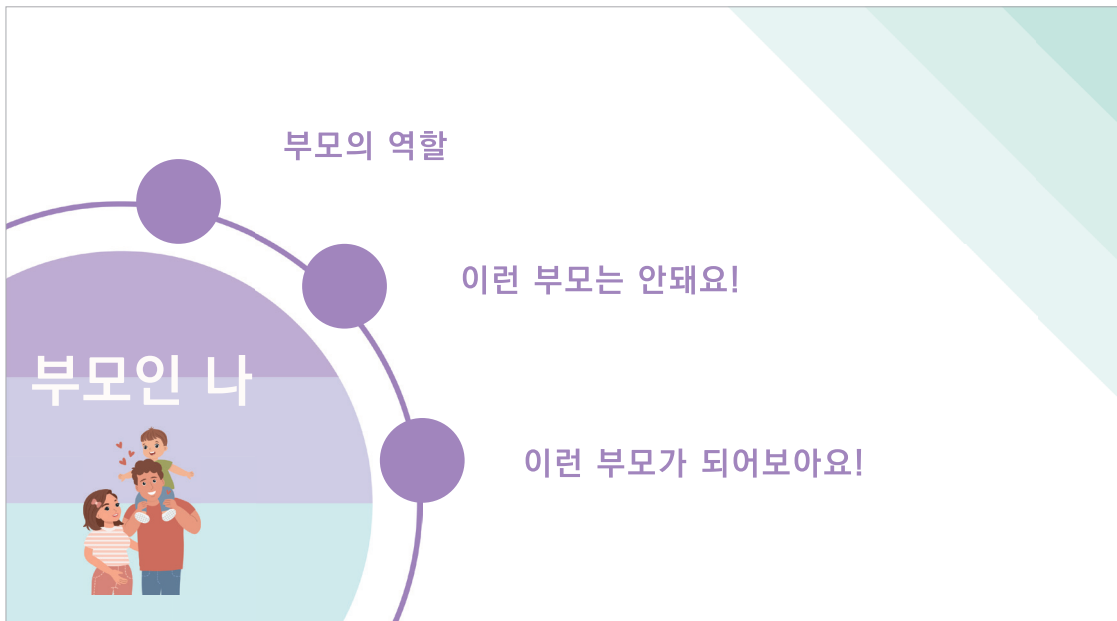
내 장점 찾기

내 마음 관리하기

미래 설계하기

유아정책연구소

8





지지·훈육하는 부모

- 기질 이해하기
- 애착관계 형성하기
- 경청과 공감하기
- 칭찬하기
- 한계와 규칙 정하기



상호작용하는 부모

놀이

책 읽기

디지털
미디어

식사





관계를 돌보는 것



연결하는
대화



사랑의 언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Family Policy Research Institute

13



연결하는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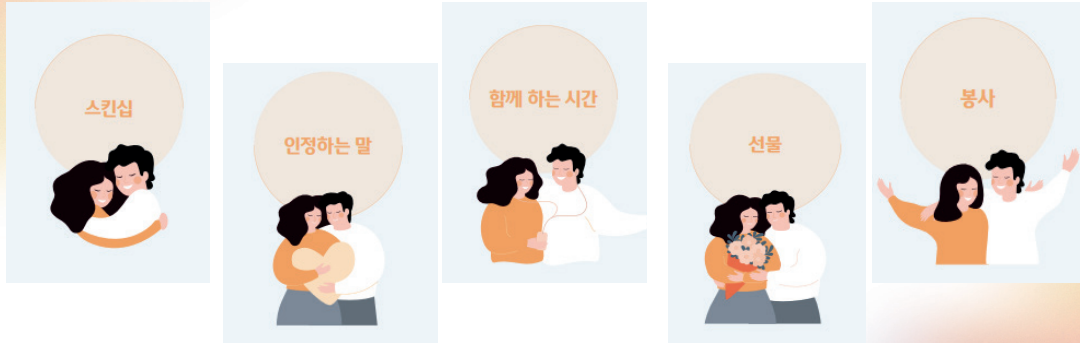
비난하지 않기

방어하지 않기

경멸하지 않기

담쌓지 않기

사랑의 언어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토론 1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1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박 현 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입법화로 아동보호체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청소년부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연구의 표적 대상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 두고 질적, 양적으로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실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진의 접근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진의 발견과 해석에 대부분 공감하며, 연구 결과 중 최근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와 법 취지에 부응하여 보다 강조했으면 하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지원을 ‘결정적 시기’에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 시기란 ‘임신을 인지하고, 임신중단이나 출산계획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산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법적으로는 보호출산이나 입양 등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국가 책임하의 입양이나 보호출산이 법취지에 맞게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해 선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어린 산모들이 산전 불안과 산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장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이어서 영아살해나 유기 등 치명적인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생아와 청소년부모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출산전 상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아살해에 대한 국외 연구(Kaplan, 2014)에서도 십대와 이십대 초반의 가해 산모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임신 사실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어머니, 파트너, 가족, 종교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의 배척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가 크며, 이러한 은폐 동기가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성격적으로도 임신 중단, 양육 포기, 출산 계획 등에 필요한 문제해결기술이나 도움요청기술이 부족하다는 데 주목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를 위해서는 출산 전부터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위기 상황시 필요한 도움 요청 및 문제해결 기술을 지원하여 자신과 아기를 위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서도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10.2~18.6%로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한부모, 미성년, 미취업, 소득이 낮을수록 도움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출산을 결정하고, 계획한 청소년부모에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시설 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산모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추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원가정 양육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아동정책에서 아동 중심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속한 가구 단위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또한 여전히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기반을 갖기 위해 의존적, 보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당사자의 학업, 취업, 또래관계, 이성관계 등 그 시기에 충족되어야 할 발달적 욕구와 영유아 자녀의 발달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부모의 발달적 욕구가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다면 '조부모-청소년 부와 모-영아'의 삼세대에 대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어린 자녀의 손자녀를 키우는 역할을 느닷없이 맡게 되면 해당 가구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된 조부모와 자녀의 역할에서 부모의 역할로 갑자기 전환된 청소년부모 모두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태어난 영아의 양육환경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어리고 취약할수록 양육자 개인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아동 친화적인 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념과 가치에 의한 논쟁이 아니라 증거기반의 효과적인 양육역량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출산전 위험요소와 아동의 발달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 청소년 산모와 그 자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어릴수록 첫 번째 임신일수록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기도 하며, 충분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임신에 대한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신 중 위험 행동을 하거나 고위

험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산모에게도 그렇지만 빈곤, 영양실조, 임신 합병증,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사용과 같은 문제는 산모 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임신기는 신생아에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데이터나 통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청소년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과 정책을 증거기반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산모와 자녀의 발달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청소년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영유아의 발달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토 론 2

이 상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2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의 방향」에 대한 토론편

이 상 정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확인(청소년부모(285명) 조사 결과)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

- 아동기 부정적 경험(빈곤, 학대/방임, 괴롭힘/따돌림 등; 이상정 외, 2022)
- 임신·출산, 양육 시 청소년부모의 부모 등 가족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존 95%, 그러나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느낌(원가정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낮음).
- 산후우울 경험 비율 84.4%로 매우 높음.

●자립지원의 필요성

- 고졸 70.9%, 학업중단 경험 24.6%,
- 경제활동 중 30.9%, 정규직 43.2%
- 주거지원 욕구 높으나, 이용 경험 37.9%에 불과

● 관계기반, 장기적 관점의 지원 필요: 자녀 양육 지원 필수, 주거, 학업, 취업 지원 필요

- 청소년부부 이용 시설 거의 없음; transitional housing,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임신·출산, 양육 지원의 방향

● 보편적 서비스 내 청소년부모, 특히 십대 청소년 부부/부/모 지원 우선하는 방향; 낙인 방지 &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보호출산제 도입(23.10.6.)과 시행(24년 7월)에 따른 위기임신 및 양육 지원체계와 의 전달체계의 연속성 고려 필요



자립지원의 방향

● 보육·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교육, 취업, 훈련 기회의 확대

- 자녀의 양육이나 돌봄 지원이 없이, 교육, 취업이 어려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29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청소년부모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교육, 취업, 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온라인, 원격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정보제공

●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접근 필요

- 사회적 편견과 낙인 예방
-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청년·청소년부모, 청년부모 가구 모두에게 사각지대와 차별 없이 서비스 제공(*아동양육비지원사업 참조;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이상정, 2023, p.52))

구분	근거법	부모 연령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아동 연령	아동 양육비	추가 금액	총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년 한부모	한부모 가족 지원법	만 25~35세 60% 이하	만 5세 이하		10만 원	3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20만 원	5만 원	25만 원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65% 이하	만 18세 미만	35만 원	10만 원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시	4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 부모	청소년 복지 지원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사실혼 인정 60% 이하	만 18세 미만	20만 원	-	20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23. 4. 21. 인출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또는 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별지원



지속가능한 전달체계와 통합사례관리 방안

● 통합사례관리의 주체: 가족센터

- 접근성: 방문기반 상담서비스, 청소년부모 접근성 낮음
- 지속가능성: 서비스 시간, 횟수, 기간 제한
- 서비스의 통합성: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이용 및 연계의 용이성 낮음
- 인지도, 이용경험 매우 낮음

●드림스타트(대안)

- 접근성: 시군구 단위 운영,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성: 아동의 연령 12세까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통합성: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지연 자연 연계 지원 용이성 높음

●가족센터→드림스타트(대안)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토 론 3

장혜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토론편

장 혜 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를 읽으면서 연구진의 고민과 애씀이 느껴졌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볼 때, 이 시기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모두 포함하기에 청소년 자신의 발달과업과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 과업이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의 육아지침서에 관한 내용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년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완성도 높은 육아지침서가 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였는가?

이 육아지침서는 지침서의 필요성에 따라 '나 돌보기, 아이 돌보기, 관계 돌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은 차치하더라도 청소년이기에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놓친 것들에 관한 아쉬움, 새롭게 맡게 된 부모역할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그런데도 출산을 선택한 부모이지만)를 겹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를 돌보기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힘을 키우기에 앞서 이들의 생활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자원을 촘촘히 제공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부모가 스스로 낙인감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변에 도와줄 많은 자원이 있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힘이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모의 ‘어려움’보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가급적 긍정적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돕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침서에 제시된 강점 리스트의 형용사도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반영한 형용사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글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임을 고려하여 간혹 어려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글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 부모의 힘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연구자도 청소년부모의 강점으로 출산을 선택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한 지원과 자원에 관해 아는지, 모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떨결에 밀린 선택이었는지,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지도 다릅니다. 자신의 발달과업을 잠시 뒤로 미룬 채 부모역할을 선택한 이들이기에 출산 이후에는 본인의 과업도, 자녀의 발달도 함께 이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침서에서 제시한 ‘나 돌보기’는 ‘청소년부모의 어려움, 강점, 내 마음 관리하기, 미래 계획 설계하기’가 통합된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청소년부모에게 경험한 도전(어려움)과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부모가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자원을 알고 활용하면서 이들의 힘이 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과 같은 도전을 극복하도록 돕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된 이후 자신의 강점을 찾고, 미뤄둔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주변의 지지체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산 이후에도 앞으로 나가는 청소년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은 청소년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리적 힘만 키운다고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자녀의 삶을 모두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알려주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부모의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도 다양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연령은 어떠한지, 한부모인지 아닌지, 원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일반적인 양육에 관한 지식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양육(훈육 포함)에 관한 교재가 많이 출판되었고 이 시기 청소년은 유튜브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는 빠르게 습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육아지침서는 일반적인 내용은 살짝, 그보다 청소년부모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차별화된 지침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안내가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에서 자기 가족에게 의존하고, 배우자나 또래 친구에게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계 돌보기에서 원가족과 또래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적 특성과 어떤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가족과 또래 친구는 비공식적 자원이자 의미 있는 지지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 유지 혹은 재정립이 이들에게 힘이 된다면 자기 돌보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 돌보기’ 내용을 보강하되, 원가족/ 또래/ 부부관계로 분리 제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의 충분한 고민의 시간과 노력이 있었을 텐데 짧은 시간에 지침서를 읽고 제안하게 되어 노고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청소년부모에게 힘이 되고, 힘을 키우는 지침서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MO

MEMO

MEMO



2023년 제11차 KICCE 정책토론회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Tel. 02-398-7700 www.kicce.re.kr